

2022년 11월 20일(다해)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백) 온 누리의 임금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성서 주간)



전담신부 : 진윤기 토마스 아퀴나스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어린이 전례 : 주일 오후 3시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19:00, 온라인(Zoom)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오늘 전례 오늘은 연중 마지막 주일로, 온 누리의 임금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절대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만물을 화해시켜 우리가 하늘 나라에서 당신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제1독서 사무엘기 하권의 말씀입니다. 5,1-3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화답송 시편 122(121), 1-2.4-5 (◎ 1 참조)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1,12-20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복음 환호송 마르 11,9.10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알렐루야.

복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3,35ㄴ-43

<주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영성체송 시편 29(28),10-11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영성체 후 묵상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 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 아드님 안에서 우리는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신 주님께 청합시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교황님 기도지향 - 11 월]



복음화 지향 : 고통받는 어린이들

고통받는 어린이들, 특히 거리의 아이들, 부모를 잃은 아이들, 전쟁의 피해자가 된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고 가정의 사랑을 되찾도록 기도합니다.



♣ 오늘의 복음 묵상 - 허영업 마티아 신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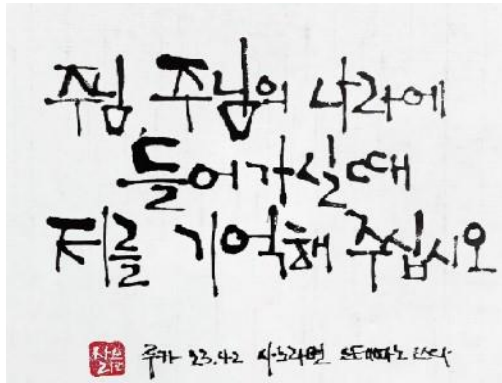
온 누리의 임금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온 누리의 임금이심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온 누리의 임금으로 선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 다윗이(제 1 독서) 당신의 조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듯이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기(제 2 독서)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만물의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는 십자가 위에서 조롱을 받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께서 아무것도 아닌 당신 백성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니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통치는 세상의 왕권과는 무엇인가 다른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 2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만물의 임금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만물이 하느님과 화해를 이루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신 것은, 오로지 당신 피로 모든 이의 죄를 대신 기워 갚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알려 주신 하느님의 계획이었고 십자가는 바로 세상 창조 때부터 진행된 하느님의 계획이 온전히 실현된 장소였습니다.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만물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써 참된 임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오늘,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 예수님의 왕직에 동참합시다. 곧,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마련하신 하느님의 계획입니다.



|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성서 주간) 복음 필사 |

내 마음의 성경
한구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루카 23,43).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두 도둑', 안드레아 만테냐 작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위령성월 기간 미사 전 연도 안내

[미사 전 연도 안내] 위령성월 동안 주일 오후 2시 15분부터 위령들을 위한 연도를 바칩니다.

※ 소공동체별 연도 선창 순번 (20 일) 루카반 → (27 일) 마르코반

성서 주간의 역사와 의미 - 성서 vs 성경

전례력으로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온 누리의 임금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축일명대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임금)이심을 기리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정치권력을 장악하여 백성을 억누르는 임금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희생하시며 백성을 섬기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실현하셨습니다. 스스로 낮추심으로써 높아지셨습니다. 1925년 비오 11세 교황이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일을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정하였으며 한국 천주교회는 1985년부터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간을 성서 주간으로 신자들이 일상 생활 중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며 자주 읽고 묵상하기를 권장합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2005년까지는 성서(聖書)라고 불러오다가 성경(聖經)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나 근본적으로 그 내용과 본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의 근본으로 삼아야 하는 하느님의 '말씀'이며, 또한 계시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제 38회 성서 주간 담화 | 11월 20일~26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위원장 신호철 주교님께서 제 38회 성서 주간을 맞이하여 담화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시기(Untact)를 최근 몇 년을 보내오다가 이제는 온라인으로 만나고 소통하는(Ontact) 생활 양식이 뉴 노멀이 되었으며 우리의 신앙생활도 큰 변화를 맞이하였지만, 온라인을 통한 신앙생활과 그에 따른 실천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차츰 회복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편의에 따라 신앙의 임시방편을 선호한다면 이는 결코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라 할 수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교회의 전례와 성사, 그리고 공동체 생활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루는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현장에서 믿는 이들 사이의 직접적인 만남과 소통을 통한 친교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담화문] <https://www.cbckorkr/Notice/20221056?page=3&gb=K1200>

주일미사 의무 관면 해제

크리스토퍼 주교님께서서는 교구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과 웰빙을 위해 결정하셨던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중 주일미사 의무 관면을 코로나 19에 대한 새로운 상황의 사실을 고려하여 11월 27일(대림 제1주일)부터 해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주교님께서서는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체로 우리를 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사에 참석하고, 미사에 참석해야 하는 의무는 우리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 삶 전체의 "근원이자 정점"인 성찬례를 위해 모이도록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와 행동으로 공동체가 모이고 믿음과 경축 안에서 함께 걸을 때 예수님께서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계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걷기(Walking Together)"를 계속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2022년 성탄 판공성사(11월 27일~12월 18일)

판공성사표 분배 : 각 소공동체 반장님(11월 20일(주일))
성사 순번(권고) : (11월 27일) 요한반 → (12월 4일) 루카반 → (11일) 마르코반 → (18일) 마태오반

꾸르실료 재교육 (11월 26일~27일)

2019년 꾸르실료 교육을 수료하셨던 교우 세분(김수연 베로니카, 임채숙 마리아, 주정자 루치아)의 재교육이 있습니다. 이 세분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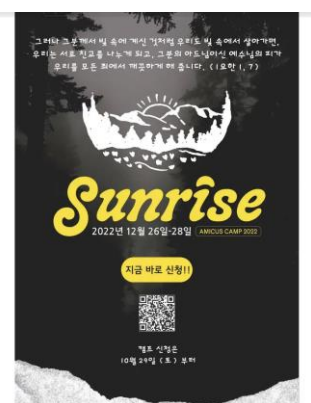
청년캠프(AMICUS CAMP)

일시: 12월 26일(월)~28일(수)
문의 : 김예린 크리스티나
(☎ 0433 934 686)

※ 캠프 참가비 일부 지원

2023년 공동체 달력

가정당 1부씩 성전 입구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부수문의: 허준 안토니오)





|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성서 주간) 주간실천 |

피조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㉔
 목욕 횟수와 샤워 시간 줄이기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㉕
 하루 5회, 급제동과 급출발 하지 않기
 → 2.19kg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

cpbcTV 가톨릭콘텐츠의모든것

윤원진 신부가 말하는
 그리스도왕 대축일의 의미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오늘 다시 주님께

성경과외 해주는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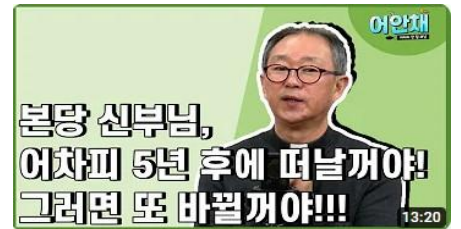
[가톨릭성경통독 13 강]
 왜 약속의 땅이 아닌
 시나이산이었나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탈출기 4 부 | 19-40 장

어안채

시노달리타스? 이게 뭐야???
 나승구 신부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시노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보시고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주일 미사 참례자수

11 월 6 일 (로컬 다문화 미사)	성인 25 아이 8	11 월 13 일	성인 39 아이 10
-------------------------	------------	-----------	-------------

□ 우리들의 정성 (11 월 12 일(토)~11 월 18 일(금))

구민식	권묘순	김요한	남궁영근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전인철	조성민					
교무금 \$530 (11 가정), 봉헌금 \$295							

※ 교무금 온라인 납부/공동체 계좌 정보 (Reference : 납부자 이름 반드시 기재)

Name :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 062786 / Account Number : 000027424

□ 봉사자 안내

○ 독서 : (11 월 20 일,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성서 주간))

주정자 루치아, 허준 안토니오

(11 월 27 일, 대림 제 1 주일) 장호훈 마르코, 서은주 데레사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 (20 일) 마르코반 → (27 일) 마태오반 → (12 월 4 일) 요한반 → (11 일) 루카반

○ 미사 후 다과·친교(매 2 주 1 회, 매월 첫째주 식사) : (20 일, 간식) 마르코반 → (12 월 4 일) 마태오반

※ [어린이 안전 규정] 성당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보호자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태연(마태오반), 이기주(루카반), 한정민(루카반) (세실리아, 22 일), 이서하 플로라(유아초종교, 24 일), 조성희 카타리나(요한반, 25 일)님의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